

BMW, i3에 삼성SDI의 LiB 채용

4월24일 순수 전기자동차 <i3> 공개 ... 1500km 충전비용 3만원

BMW코리아는 4월24일 자사 최초의 순수 전기자동차인 <i3>를 공개했다.

BMW코리아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)에서 신차 발표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하는 BMW의 하위 브랜드 BMW i와 전기자동차 <i3>를 선보였다.

<i3>에는 CFRP(탄소섬유강화수지) 등 초경량 소재가 적용됐고 드라이브 모듈에도 대부분 알루미늄을 사용해 중량이 1300kg으로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 출시된 전기자동차 가운데 유일한 후륜 구동이며 최고출력 170마력, 최대토크 25.5kg/m의 힘을 낼 수 있으며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데는 7.2초가 걸려 중형 세단인 <320d>보다 0.2초를 앞당겼다.

완속 충전은 100% 충전에 3시간이 걸리고 급속 충전은 30분 만에 80%를 충전할 수 있으며 완전 충전 상태에서 최대 132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에코 모드에서는 거리가 더 늘어난다.

BMW가 약 300만원에 별도 판매하는 가정용 충전기를 사용하면 한국전력의 전기자동차 요금제를 적용받아 1330원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며 1달 동안 1500km 가량을 주행하면 총 3만2500원이 든다.

<i3>에는 삼성SDI가 만든 중량 230kg의 리튬이온 2차전지(LiB: Lithium-ion Battery)가 투입됐으며 국내 고객을 위해 220V 전압을 사용하는 비상용 충전기를 제공한다.

고급형 <i3 SOL>과 최고급형 <i3 VIS> 등 2개 라인업을 먼저 출시하고 기본형 <i3 LUX>는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.

가격은 <i3 LUX> 5800만원, <i3 SOL> 6400만원, <i3 VIS> 6900만원이다.

BMW 관계자는 “국내 전기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일한 사양의 독일 가격에 비해 약 300만원 낮은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4/04/24>